



“나는 이대로 완전하다”

정무 스님 (석남사 회주)

큰 길에 나와 보니 설 명절을 전후해서인지 자동차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도심의 생활이 이력이 나건만 어디를 가나 마음과 육체의 쉴 곳을 찾지 못한다.

이럴 때 생각나는 곳이 잠깐이면 갈 수 있는 절이다. 우리 가까이 있는 절은 못 사람들의 의지할 곳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휴식처 기능도 한다.

안성 서운산(瑞雲山, 547m) 자락의 석남사. 마음의 휴식을 원하는 수도권 사람이라면 한번쯤 가볼 만한 곳이다.

안성시에서 313번 지방도를 타고 마문호수 지나 상촌마을 뒤에서 절로 이어지는 길이 나온다. 길옆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도 있어서 청량감을 준다. 절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상쾌함을 주는 호젓한 산길을 걷다보면 금광루(金光樓)가 나온다. 절에 들어서자 오른쪽으로 2기의 석탑(향토유적 제19호)과 보물 제 823호인 영산전이 눈에 띄고, 고개를 더 높이 올라 급경사를 이룬 계단의 끝에 대웅전이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다. 회주 정무 스님이 주석하는 중심당에 들어서자 스님의 따뜻한 미소만큼 햇빛이 따사롭게 비춘다. 스님께 인사하듯 드리고 마음 다스리는 법과 사람사는 이치에 대해 여쭙보았다.

부처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마음을 수련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얘기를 들어보니 건강을 해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건강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 보다 더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이고 재산이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마음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의 속성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은 본래 물과 같습니다. 물은 주변 상황에 따라 얼음이나 수증기가 되기도 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 또한 환경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불성인 것입니다. 그럼 수행은 무엇일까요. 물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마음관리 방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8만4천 경전을 통해 우리들에게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불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실상 세상을 살다보면 남을 이기는 것 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달마할매론>에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얻(승)하지 말라. 부처는 경(經)을 읽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戒)를 가지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으며, 부처는 지킴도 범함도 없으며, 선과 악을 짓지도 않는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곧 부처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품을 보지 못한 채 열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물을 지키거나 계를 지킨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

불은 왕생의 인과를 얻고, 경을 읽으면 총명해지며,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를 하면 복스런 과보를 받게지만 부처는 끝내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동안거 기간이라 많은 스님들이 선방에서 수행중입니다. 그러나 불자들의 경우 안타깝게도 생활을 하느라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좌선위주의 움직이지 않는 정중선(靜中禪)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동중선(動中禪)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간화선이라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있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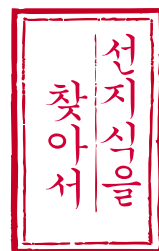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마음 챙기기를 세세생생하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불법입니다. 불자들이 봉사하게 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요즘 ‘저출산 고령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간의 문제가 커져간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불화의 원인은 인간의 방탕에 기인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남편과 주부가 자신의 역할을 망치고, 자녀교육 등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개인주의적 발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9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그거 별로 보탬이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전통인 효 문화를 살려야 합니다. 토인비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인류사에 기여할 것은 효 문화 선양이라고. 몇 년 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와서 효 문화를 보고 감명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다보니 놓쳐버렸지만 지금이라도 효문화를 회복할라 치면 우리의 피에 녹아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원 청정 광명의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으면 수행도 봉사도 나날이 즐거울 것입니다. 항상 암시를 하세요. 나는 이대로 완전하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나 나의 공적적인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며 곧 보살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원해 보십시오. ‘네 항상 보리심을 발하여 법과 계율을 지니고 또한 자비심 내어 세상 중생을 보호하라. 고운 말과 이익되는 일로 중생을 교화하고 또 함께 법을 말하여 착한 행 닦아가게 하라. 팔공 오육 번뇌에 수미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세상법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의 길잡이 되리라.’ 글= 김원우 기자 · 사진= 박재환 기자

“아무리 훌륭한 간화선도 생활과 떨어져 있으면 의미없어 마음 잘 다스려 세상 위해 헌신 하세요”



정무 스님은 정무 스님은 1931년 전북에서 태어나 전북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군산 은적사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1969년부터 신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접 프로그램을 고안해 실행했으며, 1968년 영주 포교당에서 ‘신도 수련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정무 스님은 자신에게 엄격하다. 출가이후 지금까지 매일 새벽 3시엔 기상하고 4시 예불, 5시 참선, 6시 공양, 7시 운력, 8시 공부... 이런 식으로 1시간 단위로 일정이 짜여져 있는 시간표를 엄수한다. 또 행자를 엄하게 가르칠 뿐 아니라 신도교육에도 철저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스님은 일정정도 공부를 이수하면 신도들에게 부모자격증, 부부자격증, 자녀자격증을 줄 정도다. 최근에는 평생교육과 노후준비 현실요법을 85쪽 분량으로 수록한 <마음공부>를 펴내 불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얏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썩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밀납양초(蜜蠟洋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5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6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8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썩양초

- 1 원기둥 7.4φ × 30cm
- 2 돈타레 5.6φ × 27cm
- 3 약썩향 1호 5.9φ × 20cm
- 4 약썩향 3호 4.7φ × 13cm
- 5 약썩향 4호 4.7φ × 10cm
- 6 약썩향 등초 3.1φ × 12.5cm

▶ 식물성 양초

-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φ × 29cm
-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φ × 27cm
-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φ × 26cm